

경제적 성장과 불경건에 관한 연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이우성¹⁾, 김보현²⁾

2010. 6. 11.

목차

1장. 서론

2장. 경제적 부의 축적과 불경건에 관한 논의

- (1) 성경의 관점에 대한 논의
- (2) 사회학적, 심리학적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3장. 경제수준과 불경건 활동에 관한 국제비교

- (1) 불경건의 경제의 정의와 현황
- (2) 국가별 1인당 GNI와 불경건 경제 규모와의 상관관계

4장.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불경건 경제의 성장에 관한 논의

- (1) 개요
- (2) 성관련 산업
- (3) 유흥산업, 마약산업
- (4) 도박산업

5장. 결론

- (1) 시사점
- (2) 향후 연구방향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경제분석연구단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02-3284-1781, 010-9068-2803, leews@stepi.re.kr

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02-3284-1850

1장. 서론

세상의 불경건함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세상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로 인하여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세상은 과거보다 더욱 불경건한 문화와 경제활동으로 더욱더 경건치 못한 세상으로 커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세상의 마지막 심판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의 행태에 묘사하고 계신데 여기에서 바벨론은 세상 모든 국가들의 풍요로운 교역의 대상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경제적 풍요의 하나의 상징처럼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가지고 있던 온갖 진기한 기명들과 물건들로 인하여 세상의 칭송과 아름다움을 자랑한다고 하였다.

중세시대 이후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으로 인해 촉발된 서양문명의 경제적 부의 축적은 1차 산업혁명 시기를 지나 19세기말 20세기초의 2차 산업혁명, 그리고 20세기말의 IT 혁명을 중심으로 한 3차 산업혁명 시기를 지나면서 과거의 경제적 부와는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이러한 경제성장과 경제적 부의 축적은 20세기 중엽부터 더욱 가속화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20세기말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단순히 서양문명국가들에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가들이 이러한 경제적 부의 축적에 점차적으로 더욱 가담하고 있는 형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사에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서구문명의 경제적 부의 축적과 글로벌화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다면 경건함을 더욱 촉진시켜 왔을까 혹은 반대로 세상의 불경건함을 더욱 촉진시켜 왔을까? 일면 이 문제는 단순해 보일 수 있다. 경제적 부의 축적과 풍요로움은 분명 인간의 게으름과 방만을 가져올 수 있기에 불경건한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소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경제적 부의 축적은 단순히 불경건과 연계시킬 수 없는 측면들도 존재한다. 성경에는 부의 축적이 분명 게으름이 아닌 부지런함의 결과이며 부지런함과 검소한 생활이 부의 축적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부지런함과 검소한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부자가 된 사람들이 불경건함과 방탕함에 젖어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성경에서도 주님 앞에서 경건한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부를 축적한 경우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브라함이나 욥, 잠언의 현숙한 여인 등이 대표적인 인물들이라고 보여진다. 반면에 성경은 동시에 부한 사람들의 높아진 마음과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땅에 홀로 거하려 하는 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도 가득하며 세상은 이들의 불경건한 문화와 불의로 인하여 심판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계신다.

본 논문은 경제성장과 불경건의 문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고찰하면서 이러한 복잡한 인과관계를 풀어보고자 한다. 그리고 현대 사회가 분명 그 부의 축적으로 인하여 교만하여진 마음과 방탕함으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사회의 불경건함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반면 경제성장과 풍요는 동전의 양면과 같

이 진정 경건한 사람들의 손에 있을 때 보다 유용하게 의미있는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으며 세상의 풍요로움으로 인한 불경건함은 그리스도인들의 경건함으로 인하여 제한되고 정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함을 보여주고자 한다.

2장에서는 성경에서 바라보고 있는 경제적 풍요로움과 불경건함에 관한 관점들을 정리하고 이어서 기존의 심리학, 사회학의 연구결과들에서 경제적 풍요로움이 가져올 수 있는 이기주의적 문화, 개인주의적 문화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정리하여 본다. 3장에서는 불경건의 경제에 대한 기존 정의와 현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본 연구를 위해서 불경건을 실증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세 가지 산업 유형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불경건의 산업 유형에 대해서 국가별 경제수준과 이들 불경건 산업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여기에 이들 국가들의 종교적 특성이 어떻게 불경건 산업들과 상관관계를 맺는지 살펴본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이러한 불경건 산업들이 어떻게 발전해 오고 있으며 과연 우리 사회가 과거 경제적으로 빈곤할 때보다 그 불경건함이 더욱 높아져 오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성장이 1970년대까지 높은 성장을 보이다가 80년대 이후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종교적 상황의 변화와 불경건 산업들의 발현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5장에서는 이러한 분석들이 내포하고 있는 시사점들을 정리하고 향후 연구들의 방향에 대해서 정리해 본다.

2장. 경제적 부의 축적과 불경건에 관한 논의

(1) 성경의 관점에 대한 논의

칼빈주의와 요한 웨슬리의 관점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의 직업에 대한 소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며 부지런함과 검소함, 즉 근면검소함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이를 나누는 자선의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말함으로써 부의 축적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이를 통해서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막스 베버 역시 서구 자본주의의 성장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정신, 즉 이러한 근면검소함의 정신이 자본의 축적을 가져 왔고 이러한 자본 축적이 서구 자본주의 성장과 경제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서구 자본주의의 발전에 기독교적인 정신의 역할이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부의 축적에 있어서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ill-gotten money가 swindle away 한다고 말씀하시고 부지런함을 통해서 부의 축적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하고 계신다.

--> 자본주의와 기독교 정신에 대한 기존 연구들 정리..

반면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성경은 부자들의 교만과 악행에 대해서 경고하고 비판하고 있으며 마지막 날의 심판에 있어서 이러한 세상의 부와 그로 인하여 파생되

는 불경건함과 불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또한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 탐욕을 우상숭배와 같다고 말씀하시며 분명 이와 더불어 그리스도인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계신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한 18장에서는 바벨론의 받을 심판과 멸망을 말하면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 주라..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견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각종 기명이며..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네 영혼의 탐하던 과실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 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다.."라고 말씀하심으로서 바벨론의 사치와 방탕과 음란함이 심판을 받고 이들의 상품들이 사라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다.

(2) 사회학적, 심리학적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이우성(2006)은 현대의 개인이 가지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라고 하는 물질주의가 개인의 쾌락주의와 연결되어 개인과 가족 공동체, 사회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존의 사회학적, 심리학적, 경제학적 연구결과들을 정리하고 있다. 저자는 존 더 그라프의 어플루엔자(2002)에서 '카터의 마지막 저항'을 인용하면서 1970년대 말부터 미국사회에서 새롭게 증대되고 있는 소비와 물질주의에 대한 비판을 언급하고 있다.

"1979년에 행한 그의 유명한 '국민병national malasie' 연설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서까지 이의를 제기했다. "너무 많은 미국인들이 현재 방종과 소비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의 연설은 어플루엔자의 확산에 맞서 미국의 대통령이 취한 용기 있는 저항으로는 마지막이었다. 역사학자 데이비드 샤이는 이렇게 말한다. "지미카터가 패배하는 데는 그가 경제성장과 자

본 개발이라는 높고, 넓고, 멋진 개념이 현대 미국의 정신에 얼마나 깊이 자리 잡았는지 알아채지 못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저자는 어플루엔자(2002)를 인용하면서 세계대전 이전, 혹은 1980년대 이전의 사회에서는 경제성장과 부의 축적이 가져올 수 있는 물질주의의 폐해에 대한 우려와 다른 사회적 가치의 우선순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컸다고 지적한다(존 더 그라프 외 어플루엔자, 2002).

"역사가 데이비드 샤이는 이렇게 말한다, "19세기말 단순한 삶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이 크게 되살아났다...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자기는 미국식 자본주의를 지지하지만 제멋대로 발전하게 내버려두면 결국은 타락한 문명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진심이었다.... 심지어 미국의 베스트셀러 잡지 '여성 가정저널'조차도 그 시기에는 단순한 삶을 장려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미국사회에서 1970년대까지 경제적 부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삶, 방종하지 않는 검소한 삶에 대한 가치관이 존재하여 왔으며 불경건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 가치관이 상당부분 우수한 상황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우성(2006)의 연구에서는 1970년대 이후 미국사회에서 만연화된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결국 미국사회의 우울증 증대 등의 개인의 붕괴, 이혼 증대와 성적 개방화 확대를 통한 가족의 붕괴, 사회적 폭력 증대를 통한 사회의 위협이 증대되는 원인이라고 지적한 기존의 사회학적 연구들을 정리하고 있다.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의 가치관은 분명 봉건주의적 사회가 갖고 있던 계급 세습의 부정의한 체제를 개혁하였지만 동시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 물질주의적 쾌락주의가 극단적으로 강조되면서 공동체적인 가치관의 파괴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물질주의와 개인 이기주의의 추구는 다양한 형태로 가족간의 유대관계의 이완 내지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디모데 후서는 말세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휘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디후 3:2)"라고 말한다. 예수님이 '돈(Mammon)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것과 같이 돈에 대한 사랑과 자기에 대한 사랑은 필연적으로 타인과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3장. 경제수준과 불경건 활동에 관한 국제비교

(1) 불경건의 경제의 정의와 현황

불경건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의는 이우성(2009)에서 처음으로³⁾ 정의를 시도하였다. 이우성(2009)에서 불경건에 대한 로마서 13:13,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4:3,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불경건이 1) 성적인 음란함과 2) 과도한 음주의 섭취, 3) 방탕한 연회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이러한 불경건의 세 가지 측면을 세 가지 현실적 문화활동으로 구분하여 1) 성적인 음란한 문화, 2) 취함의 문화, 3) 방탕의 문화로 정의하여 아래와 같이 대표적 사례들을 정리하였다.

<불경건의 범주화>

	음란	취함	방탕
범법행위	매춘	마약	불법도박
법/윤리 중간	매춘	대마초	카지노
비윤리적 행위 (사회통념적)	포르노그래피	과도한 음주	도박 중독
비윤리적 행위 (기독교적?)	포르노그래피(?)	술취함 (?) 담배 (?)	경마/경륜? 인터넷 도박게임? 복권?

자료: 이우성(2009)

또한 불경건한 경제의 산업규모에 대한 추정을 위해서 기존의 자료들과 통계들을 인용하면서 불경건한 산업의 현황을 정리하였는데 이는 1) 국제 마약 산업, 2) 포르노 그래피 산업, 3) 도박산업의 경제 규모에 대한 국제 현황 혹은 국내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마약사용에 있어서는 "전세계적으로 1억5천에서 2억명 가량이 대마초를 흡연하는 반면 아편, 코카인 등의 중독성 강한 마약류의 사용은 2천만명 가량으로 중독성 강한 마약류 사용은 총 8천만명 가량"이라고 기존 통계를 인용하고 있으며, "포르노 그래피 산업"의 경우에 "전세계적으로 포르노그래피와 관련한 산업은 2006년 현재 970억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조원에 달하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3) 국내 문헌에서는 불경건 경제에 대한 기존 문헌연구를 찾아볼 수 없으며 해외 연구에서도 유사한 용어인 unholly economic avtivity에 대한 기존 문헌을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신학적 연구에서 유사한 정의들이 있는 지에 대하여는 확인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1인당 포르노그래피 지출비용이 526달러로서 비교대상국가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규모에 있어서도 중국이 전세계 시장의 28%인 반면 우리나라가 27%로 2위를 차지하였고 규모는 257.3억달러 규모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는 대략 30조원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율이 30%라고 가정할 때 9조원 규모에 해당되는 것이며 우리나라 GDP가 대략 900조원이라고 할 때 전체 GDP의 1%에 해당되는 규모라고 볼 수 있다."라고 기존 통계를 정리하고 있다. 더불어 국내의 도박관련 산업은 "우리나라는 도박산업을 사행산업이라고 정의하고 법률적으로 아래의 표와 같은 정의에 의해서 '사행행위 영업'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다. 사행행위업은 크게 복표 발행업이라고 하는 복권사업과 예측과 관련한 경마, 경륜, 경정 사업, 그리고 기타의 사행행위로 카지노 등의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기존 통계표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행산업 전체의 매출액 규모가 2008년 기준 16조원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우성(2009)의 연구에서는 불경건한 경제에 관한 정의와 관련 산업의 현황을 정리하고 이러한 불경건 산업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취해야할 윤리적 입장과 개입의 한도 등에 대해서 폴 마샬이 제시한 사회적 정의와 윤리의 관점을 가지고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불경건한 경제가 경제발전과 부의 축적, 그리고 종교적 성향과 어떠한 연관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탐색해 본다.

이러한 탐색을 위해서 기존에 이우성(2009)의 연구에서 제시한 불경건의 경제 범위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는 산업적 측면에서 보다 체계화된 비교와 실증분석이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이우성(2009)의 연구에서 제시하였던 1) 성적인 음란함과 2) 과도한 음주의 섭취, 3) 방탕한 연회의 세 가지 문화적 측면을 산업활동과 보다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연계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1) 성적인 음란함은 인간의 생물학적, 심리학적 욕구들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성적 욕구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를 경제활동과 연관지어서 본다면 이는 성관련 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성관련 산업은 다양한 산업을 포괄할 수 있는데 직접적인 a) 성매매와 관련된 산업, b) 성과 관련된 포르노 그래피 산업, c) 성행위 관련 도구 등 제조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들 산업들은 구체적인 통계가 체계적으로 잡히기 어렵기 때문에 간접적인 통계들을 통해서 그 변화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체계적인 혹은 기존 통계를 통한 간접적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2) 과도한 음주의 섭취는 물질의 섭취를 통해서 취함(?)의 상태에 이르러서 하는 욕구라고 할 수 있으며 가장 기본적으로 a) 주류산업, b) 담배산업과 같은 약한 형태의 취함과 c) 마약산업과 같은 강한 형태의 취함이 있을 수 있다.

3) 방탕한 연회라고 표현되는 문화는 기본적으로 오락의 욕구라고 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방탕한 문화활동(?)이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화활동 가운데 기본적으로 약한 형태로는 과도한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게임 산업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강한 형태로는 도박산업이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불경건의 문화와 경제활동에 대해서도 인간의 불경건한 욕구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학적 분류에 기반하여 보다 체계화된 분류와 이에 대한 통계지표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현재로서는 본 연구를 위해서 불경건의 경제를 이룰 세 가지 문화 측면과 이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산업들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분류를 가지고 살펴보기로 한다.

< 불경건의 문화적 특성과 불경건 산업의 정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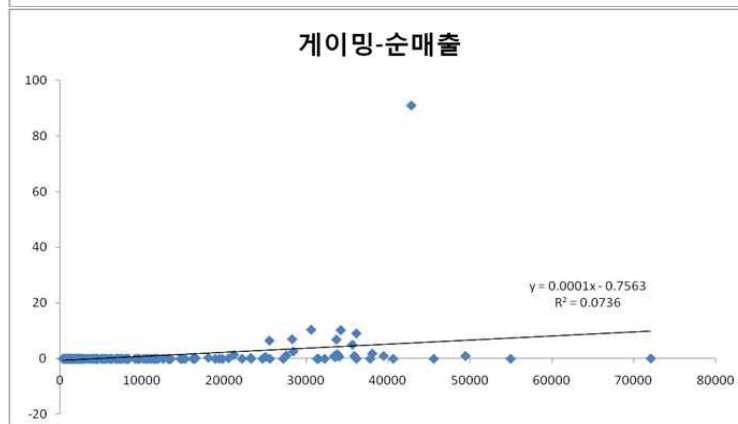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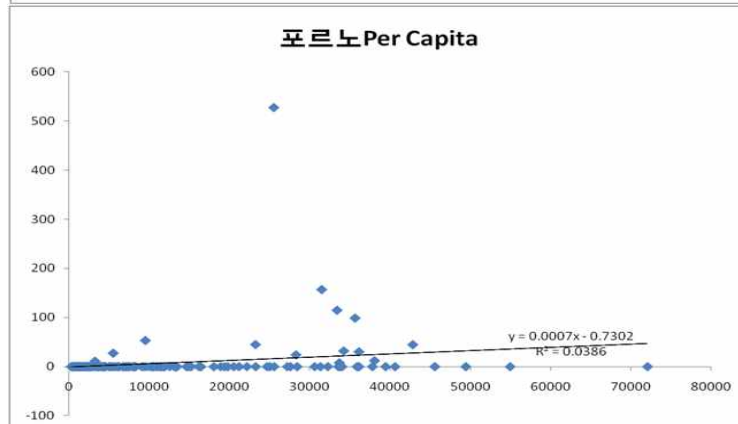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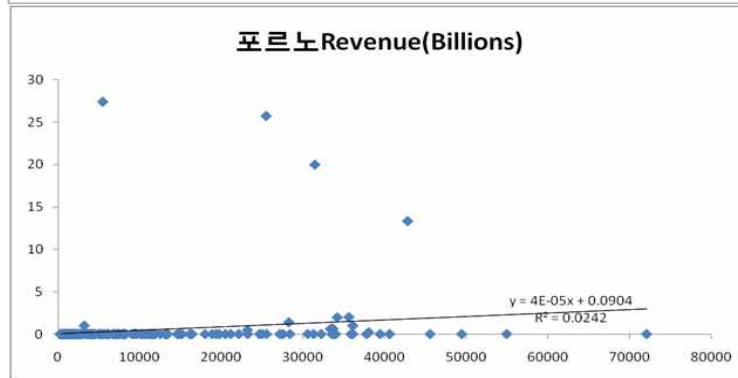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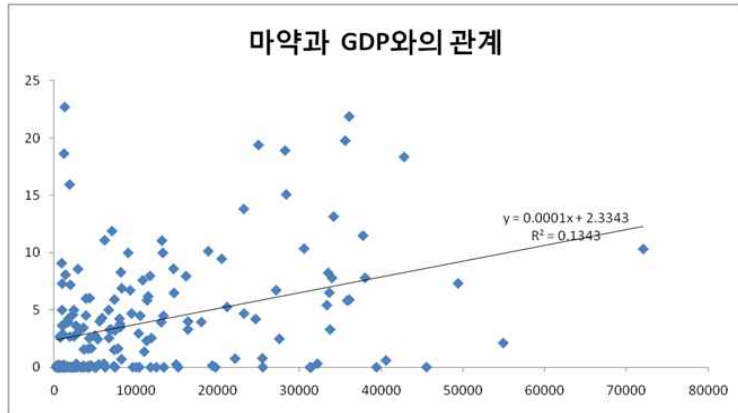
문화적 특성	불경건의 욕구적 특성	해당 산업
음란함의 문화	성적 욕구	<약한 형태> a) 포르노 그래피 산업 <강한 형태> b) 성매매 산업
술취함의 문화	취함의 욕구	<약한 형태> a) 주류산업 b) 담배산업 <강한 형태> c) 마약산업
방탕한 문화	오락의 욕구	<약한 형태> a) 게임 산업 <강한 형태> b) 도박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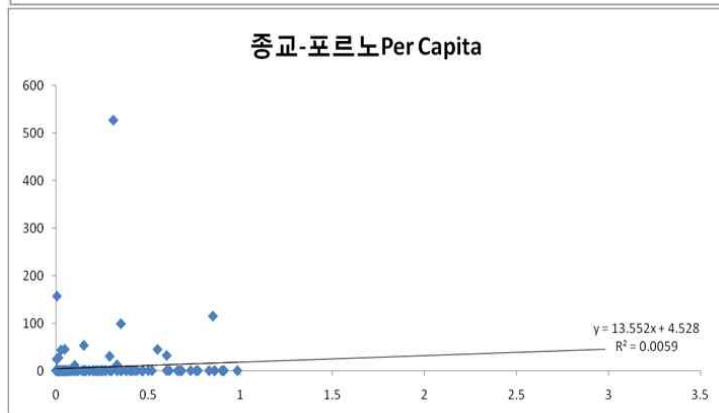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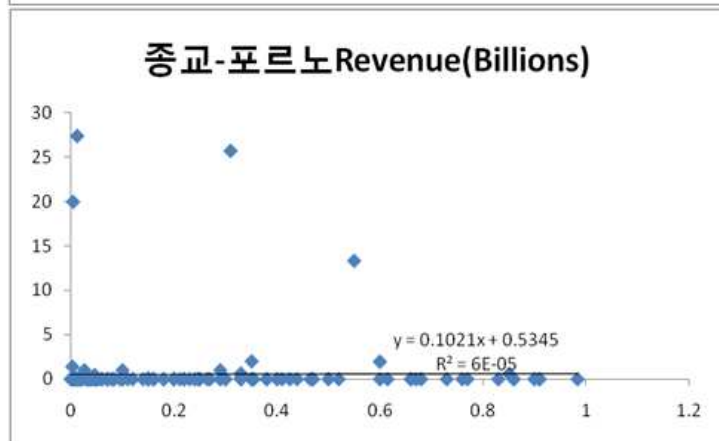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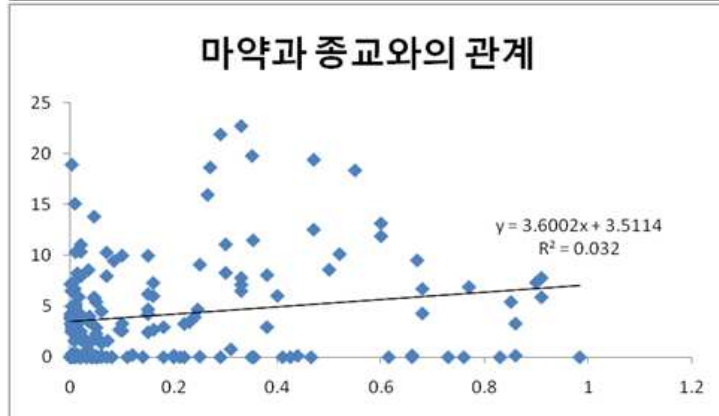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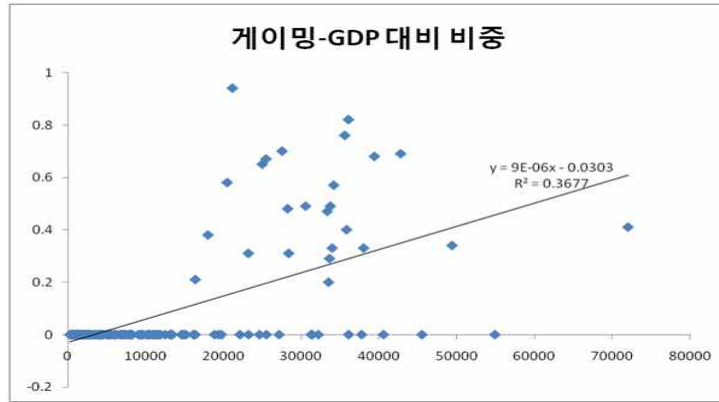
(2) 국가별 1인당 GNI와 불경건 경제 규모와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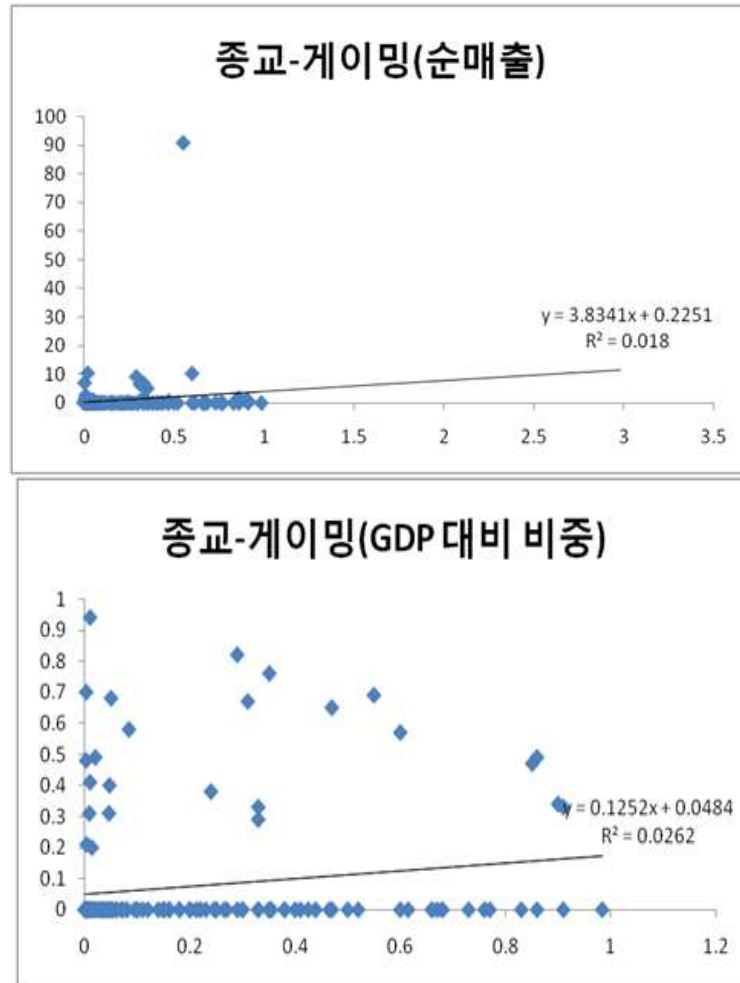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국가별 1인당 GNI라고 하는 경제적 부의 수준과 불경건 경제 규모 혹은 불경건 경제 규모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 즉 불경건 경제 규모가 1인당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경제의 생산활동에서 불경건 경제의 부가가치 규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가에 대하여 개괄적인 형태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불경건한 문화활동과 경제활동이 단순히 경제적 부의 축적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기 보다는 이들 국가들의 종교적 신념과 연관지어질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국가별 종교비율과 이들 불경건 경제활동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상관관계 분석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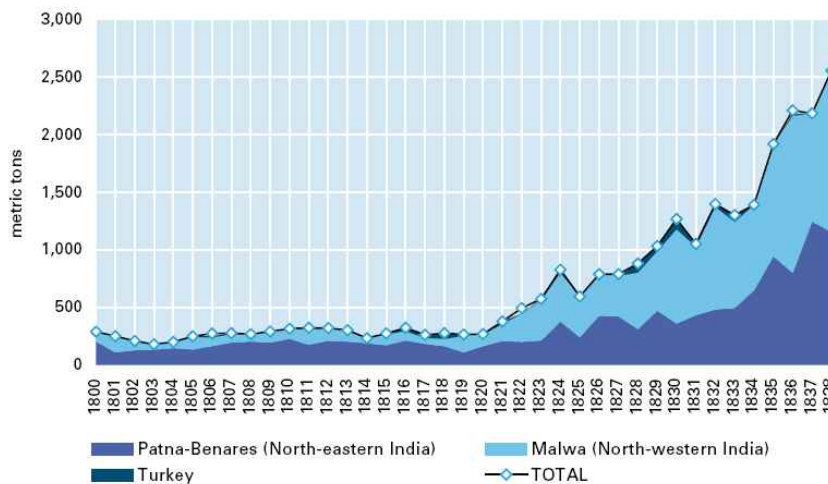




지난 World Durg Report에서는 지난 100년간의 세계 마약통제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면서 지난 100년간 국가들에서 마약류 소비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18세기에서 19세기 말에 마약류 사용이 중국 등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매우 급속하게 확산되어 갔다라는 점이다. 당시 아편으로 대표되는 마약류 사용이 중국에서 매우 급속한 속도로 확산되어 갔는데 반하여 서양에서의 마약류 소비는 극히 제한적이었 다라는 점이다. 반면에 서구문명에서는 1900년대를 지나면서 아편 이외에 새로운 종류의 마약류가 개발되고 대마초의 사용이나 ATS라고 하는 향정신성마약류가 새 로 발명되는 등의 형태로 점차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여 현재로서 서구 사회, 유럽 과 북미지역, 호주 등의 기독교 문명 사회가 매우 급속도로 마약류의 사용이 확대 되어 갔다라는 점이다. 보고서에서는 결론적으로 국제 마약류 통제에 대한 국제공 조가 발효되면서 그 타겟 물질이었던 아편과 그 이후 코카인의 사용이 억제되었지 만 이를 대신하는 대마초, ATS 등 신종 마약물질이 확산되고 마약 생산을 억제하기 위해 주요 마약생산지를 제거하여 왔지만 이를 대신하는 신규 지역에서의 마약 생 산이 확대되는 등 풍선효과가 지속되어 왔다고 평가하고 의도하지 않았던 지하시장

의 형성과 불법의 확산 등 부작용도 수반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마약류의 확산의 특징을 종교적 특성과 경제적 수준 향상과 연결시켜 본다면 애초에 자본주의의 발전을 주도한 서구문명에서는 이러한 마약류가 기독교 정신으로 말미암아 크게 억제되어 온 가치관이 만연하였던 반면 이러한 정신적 가치관의 영향이 적었던 동양에서 오히려 이러한 마약류가 만연하는 현상을 보였으며 반면에 서구의 기독교적 정신이 쇠퇴하고 경제적 부로 인한 방탕함이 확대되면서 서구에서의 마약류가 확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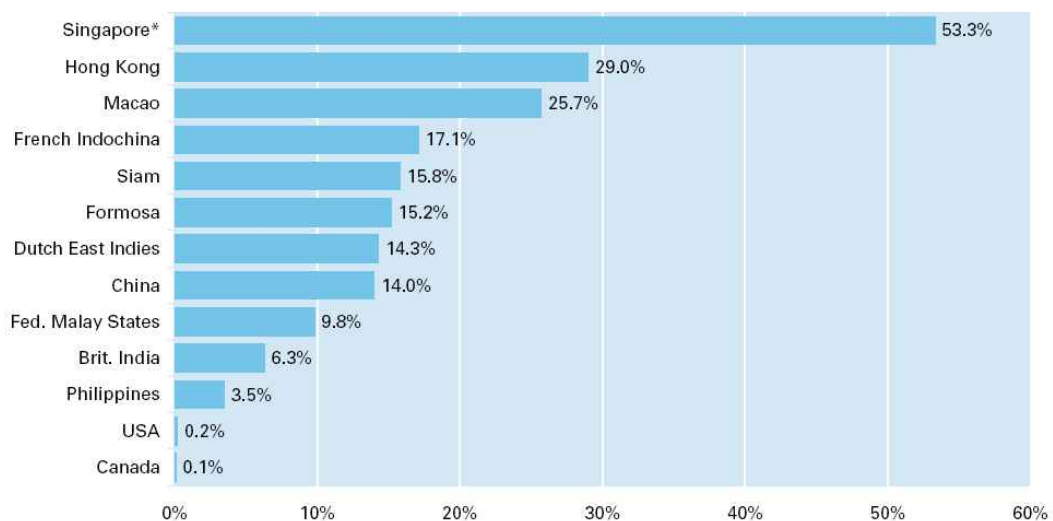
Imports of opium* into China (port of Canton), 1800/01 – 1838/39



* Original data converted into metric tons using 1 chest = 140 lbs = 63.5 kg.

Source: Michael Greenberg, *British Trade and the Opening of China, 1800-1842*, Cambridge 1951, p. 220-21 quoted in Carl A. Trocki, *Opium, Empire and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A Study of the Asian Opium Trade, 1750-1950*, p.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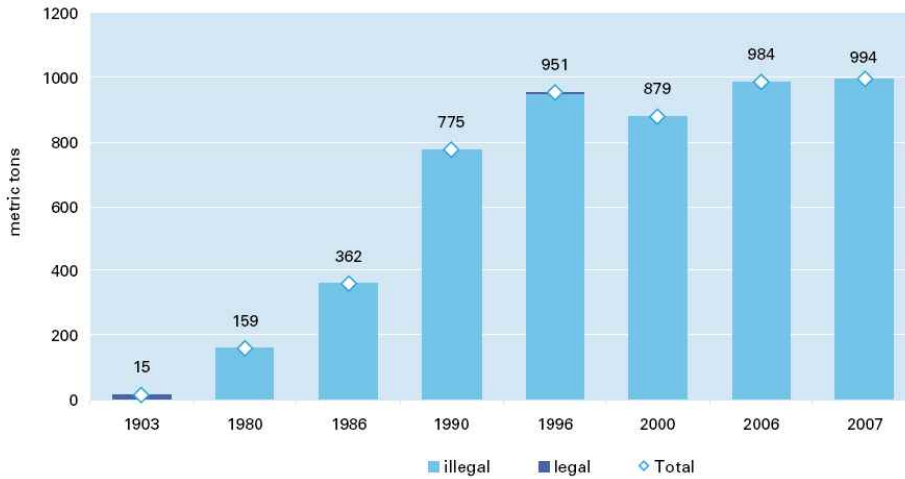
Opium related revenues as a percentage of total (state) revenues, 1906/07



*Singapore and the other two Straits Settlements Penang and Malacca (today Malaysia).

Source: International Opium Commission, Shanghai, 1909.

Global cocaine manufacture – legal and illegal, 1903-2007



Sources: Paul Gootenberg, "Cocaine in Chains: The Rise and Demise of a Global Commodity, 1860-1950", in Steven Topik, Carlos Marichal & Zephyr Frank, *From Silver to Cocaine*, Durham and London 2007, pp. 321-351, UNODC, DELTA and UNODC, *2008 World Drug Report*, Vienna 2008.

4장.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불경건 경제의 성장에 관한 논의

(1) 개요

3장에서는 1인당 경제수준과 불경건 경제활동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국제비교를 통한 횡단면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면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이러한 불경건 경제가 어떻게 성장하였는지에 대해서 시계열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다.

여기에서는 산업의 부가가치 관련 자료가 제한적인데다가 시계열 자료는 대부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대신하여 관련한 불경건한 활동들에 대한 자료들을 통해서 이들 분야의 성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들 대리지표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성관련 산업의 경우에는 윤락행위방지법위반과 최근에 제정된 2004년부터 시행된 성매매위반과 관련하여 범죄발생건수와 검거인원수의 변화, 그리고 신문검색에 있어서 '원조 교제' 단어를 포함한 연간 기사수를 가지고 살펴보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윤락행위방지법이 이미 1970년대부터 존재하여 윤락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법위반 발생건수와 위반자의 변화를 통해서 성관련 산업의 변화를 살펴보려고 하였다. 또한 원조 교제는 성매매 행위를 넘어서서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의미하는 것으로 성관련 불경건함의 정도가 더욱 높아졌음을 의미하기에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원조 교제에 대한 지표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취함의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는 마약산업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마약 산업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대리지표로는 마약관련 법안들인 대마관리법(구),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세가지 특별법 위반의 발생건수와 검거인원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마약류는 대마초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러한 대마초,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규제가 이미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규제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에서 존재하고 있는 유흥업소에 대한 조사가 공공행정 데이터에 존재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도시통계에 실리고 있어서 일부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고 있지만 1970년대와 1990년대 2000년대 이후를 모두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유흥업소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취함의 문화의 확산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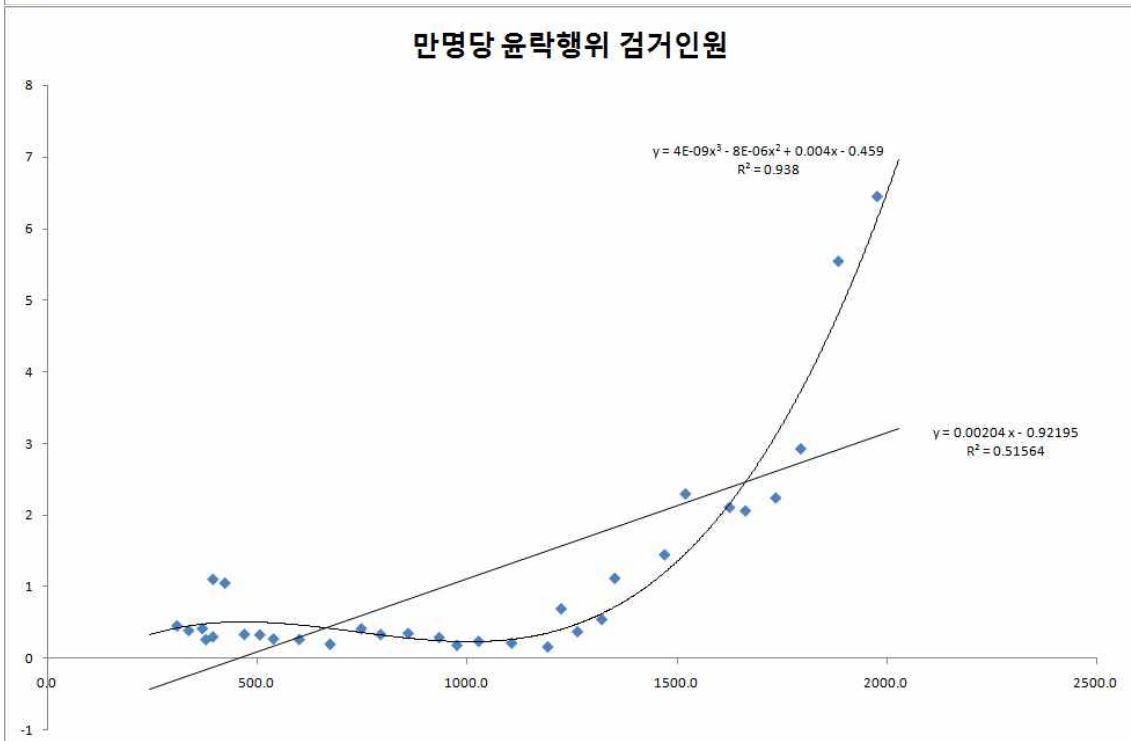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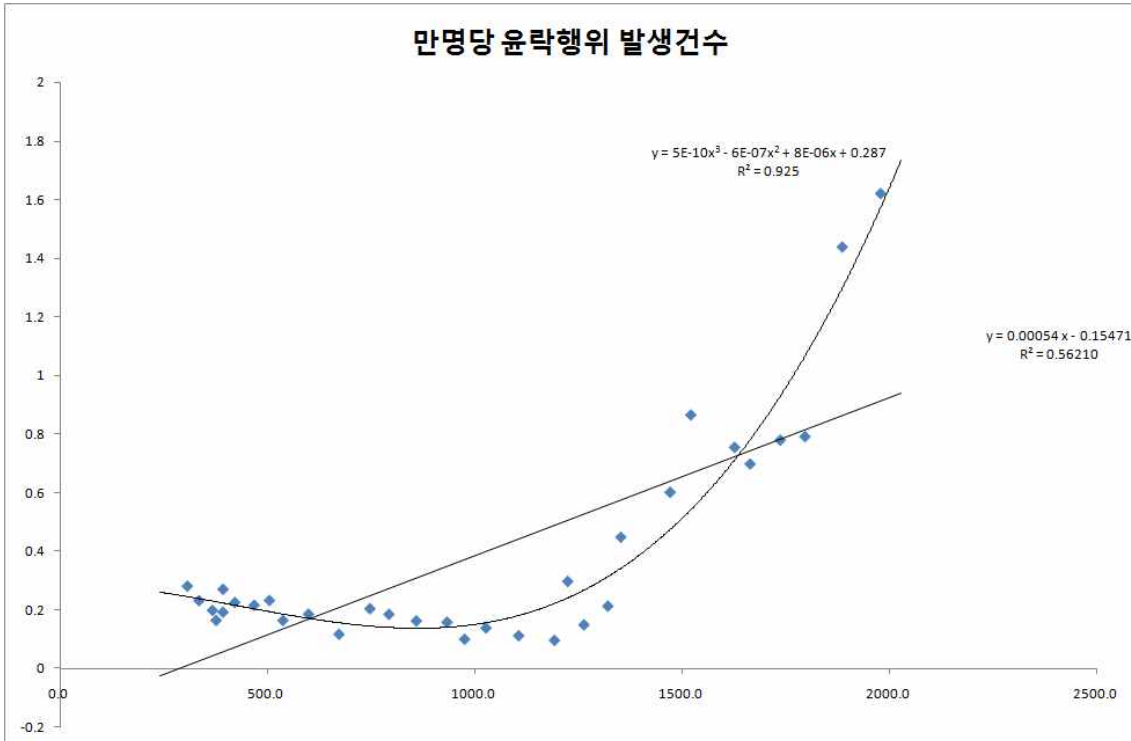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도박산업의 경우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2) 성관련 산업

우리나라의 1970년대 이후의 실질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인구 만명당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발생건수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단순회귀분석을 통해서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아래의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이 1인당 1300만원 수준에 도달했을 때 기존에 비해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직전 시기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전 시기까지는 성매매 행위와 관련한 위반 발생건수가 오히려 다소 위축되는 형태를 보이며 1인당 소득수준 향상과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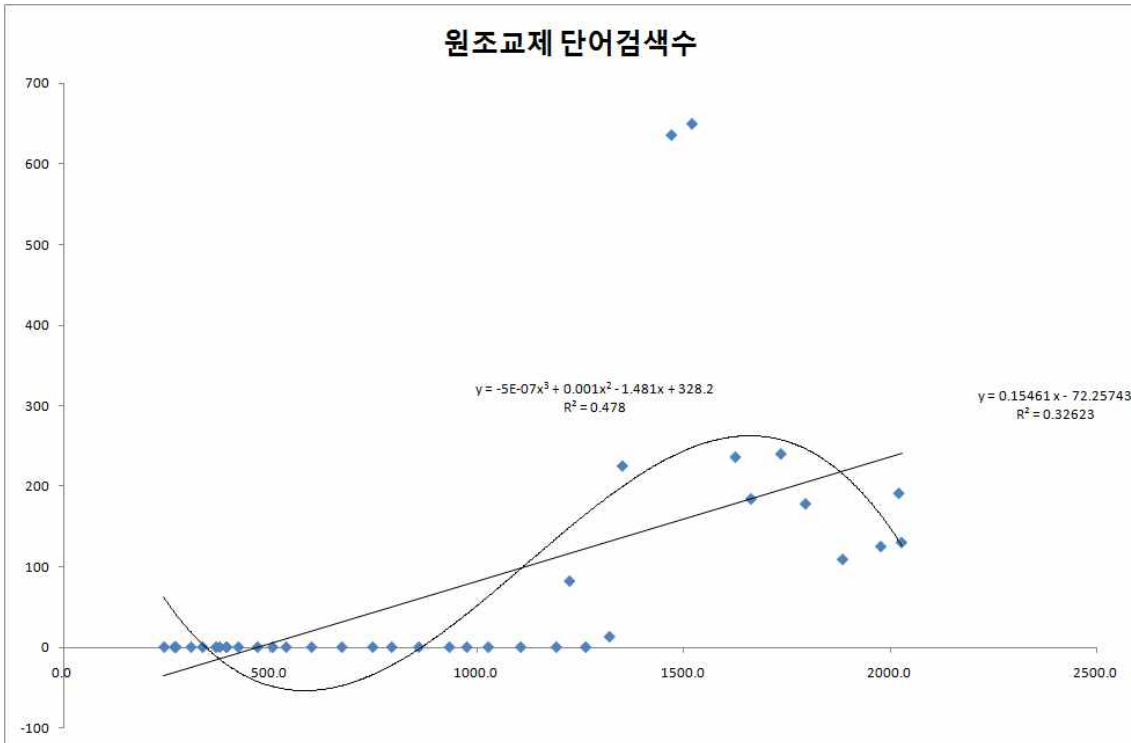
이러한 형태는 인구 만명당 윤락행위 위반자 검거인원과의 비교에서도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1970년대 이후의 실질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인구 만명당 윤락행위 위반자 검거인원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단순회귀분석을 통해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역시 동일하게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이 1인당 1300만원 수준인 1997년 외환위기 직전 시기부터 기존에 비해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 이전에는 발생건수와 마찬가지로 1인당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행위인 원조교제는 어떠할까? 우리나라의 신문기사에서 원조 교제란 말이 처음 등장한 시점은 1997년이며 당시에 원조교제는 일본에서의 원조 교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데 대한 놀라움을 표시하는 해외뉴스가 원조교제가 신문지상에 처음 등장한 시점이다. 여기에 신문사설에서는 우리나라의 청소년 문제도 심각해 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렇게 원조교제가 1997년에 우



리나라 신문지상에 처음 보도된 이후 2001년 경에는 피크를 이루어 신문지상에서 650건이 보도되었으며 이후 100-200건 정도의 기사검색수를 이루고 있다. 2001년 당시 원조교제 검거자에 대한 서울경찰청의 분석결과가 나오면서 원조교제자의 주요 연령이 16세이며 남성은 30대가 가장 많다는 기사들이 보도되었다. 2010년 가장 최근 기사는 원조교제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들과 모의하여 원조교제를 통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강도행각을 벌인 뉴스가 6월초에 보도되었다. 이를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원조교제를 통한 불경건한 문화는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확산되어 갔으며 그 범죄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진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검거인원은 2002년 3,261명에서 기간별 차이가 다소 존재하지만 2,500-3500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2007년 3,170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난다.



<원조교제에 관한 신문기사 보도 내용 사례>

횡설수설
 [동아일보]1997-10-24|01면 |종합 |컬럼,논단 |872자
 우리 나라도 휴대전화 가격이 많이 내렸지만 가까운 일본에서는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데 거의 돈이 들지 않는다. 가입비나 전화기값을 따로 받지 않아도 전화회사가 사용료만으로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은 너도 나도 휴대전화를 소지하려 들지만 요금청구서가 나온 다음이 문제다. 학생들은 형편상 요금 내기가 벅차기 때문에 돈버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일본에서 중년남성과 여고생 사이에 유행한다는 이른바 「원조교제」가 국내에도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여학생들이 불륜의 대가로 중년남성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는다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이들이 원조교제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휴대전화와 같이 분에 넘친 씹씹이가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도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강 건너 불」로만 생각할 일이 아니다▼요즘 부모들은 자녀를 엄하게 키우기보다는 아이들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 부모 입장에서는 어릴적부터 아이의 기를 살려주고 과거 자신이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을 자식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비행의 근원이 되는 흡연이나 음주는 엄격하고 보수적인 가정보다는 자유방임형 가정의 자녀에게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술과 담배에 손을 대는 청소년의 또다른 특징은 자제력이 부족하고 충동에 약한 점이다. 여기에 향락적 대중문화가 이들의 물질적 욕구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발효 이후 MBC TV의 「이경규가

간다」 코너는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팔지않고 정직하게 영업하는 양심가게를 여러 곳 탄생시켰다. 이들 가게가 불량청소년의 협박전화 등으로 수난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이웃 주민들이라도 그 가게 물건을 많이 사준다면 격려가 되겠다.

원조교제 청소년 30%가 16세...상대남성은 30대가 40%

[동아일보]2000-12-29|29면 |05판 |사회 |824자

원조교제를 하는 청소년의 연령은 16세가, 상대방 남자로는 3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조교제는 절반 이상이 인터넷 채팅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분석됐다.28일 서울지방경찰청이 올 한 해 동안 서울시내에서 적발한 청소년 222명과 상대방 남자 282명의 원조교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나이는 16세가 67명(30.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8세 48명(21.6%), 15세 38명(17.1%), 17세 35명(15.8%), 14세 26명(11.7%) 순이었다. 13세 이하도 8명(3.6%)이나 됐다.

중고교 재학생은 105명으로 전체의 47.3%였고 중퇴생이 117명(52.7%)으로 재학생과 중퇴생의 비율이 엇비슷했다.

이들 중 3명은 원조교제 사실을 알리겠다며 상대방 남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 공갈혐의로 구속됐다. 23명은 불구속입건됐으며 나머지는 보호시설이나 가정에 인계됐다.

상대방 남성 282명중에는 30대 123명(43.6%), 20대 115명(40.8%), 40대 36명(12.7%), 10대 5명(1.5%), 50대 이상 3명(1.1%)이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 102명(36.2%), 자영업 45명(16%), 무직 35명(12.4%), 전문직 14명(5%) 기타(대학생 학원강사 등) 순이었다.

경찰은 이중 137명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으며 14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주로 인터넷 채팅 151명(53.5%)을 통해 만났으며 전화방 62명(22%), 음성사서함 38명(13.5%), 친구소개 18명(6.4%), 길거리 유인 13명(4.6%)이었다.

<허문명기자>angelhuh@donga.com

“원조교제 제의받았다”24%

[문화일보]2001-07-05|29면 |03판 |사회 |뉴스 |493자

경기도내 실업계 여고생과 여중생의 24% 가량이 성인 남성으로부터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 제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전담수사반이 지난 5월부터 두달간 도내 실업계 학교 여고생와 여중생 1만2228명을 대상으로 성폭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학생의 24%가 '인터넷 등을 통해 성인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제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응답 학생의 93%는 '청소년 성매매가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7%의 학생들은 '필요에 따라 괜찮다'고 답했다. 또 16%의 여학생이 '학교 앞이나 대중교통 이용시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76%는 '성폭력에 관한 고민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친구들과 상의한다'고 응답했다.

성폭력전담수사반 관계자는 “강간 등 성폭행 피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많은 여학생이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며 “행정기관·시민단체 등과 협조해 청소년 성폭력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배한진 기자 bhj@munhwa.co.kr

원조교제 미끼로 돈 뜯은 겁없는 10대 5명

경북 구미경찰서는 7일 원조교제를 미끼로 남성들을 여관으로 유인한 뒤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특수강도 등)로 문 모군(19)과 김 모양(18) 등 10대 청소년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양은 지난달 26일 0시30분께 구미시 진평동의 한 여관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10만원만 주면 원하는 대로 해준다'란 글을 올려 양 모씨(22)를 여관으로 유인했고, 공범인 문군 등 4명은 여관에 들이닥쳐 양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14만원을 빼앗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4회에 걸쳐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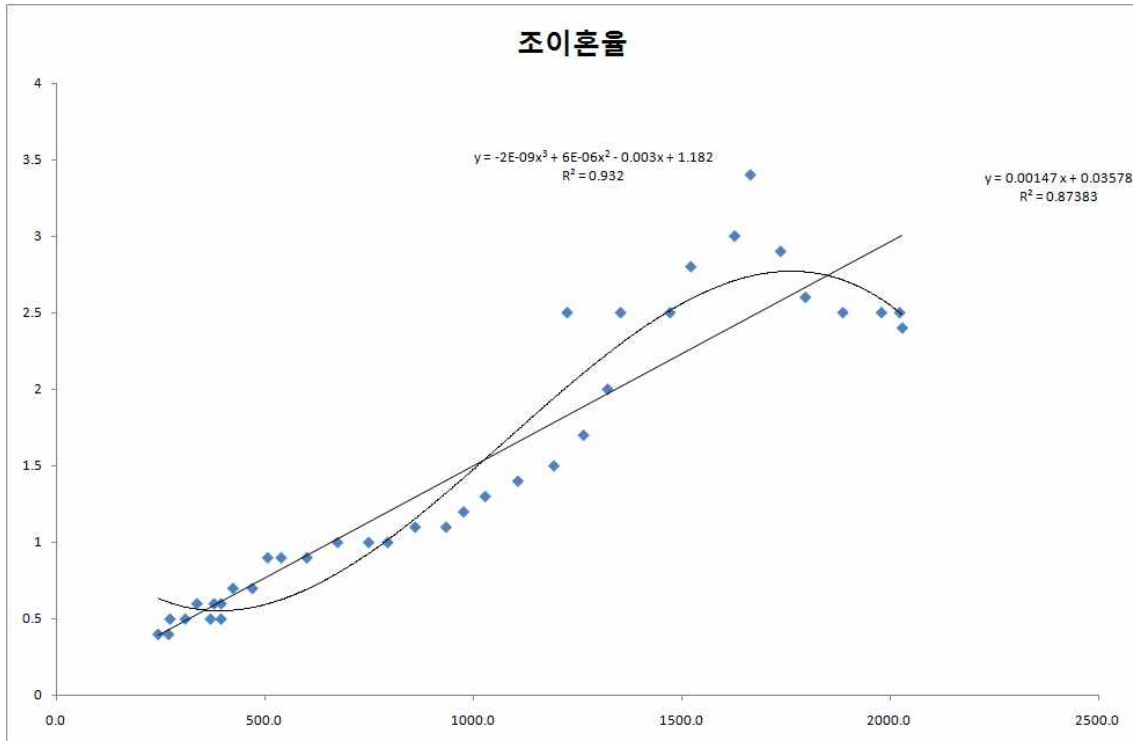
결손가정에서 성장해 6~7개월 전에 가출한 상태에서 만난 이들은 여관에서 합숙하면서 범행을 저지

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3월 초부터 최근까지 구미 일원의 주택과 사무실, 주차된 차량 등에 침입하는 수법으로 30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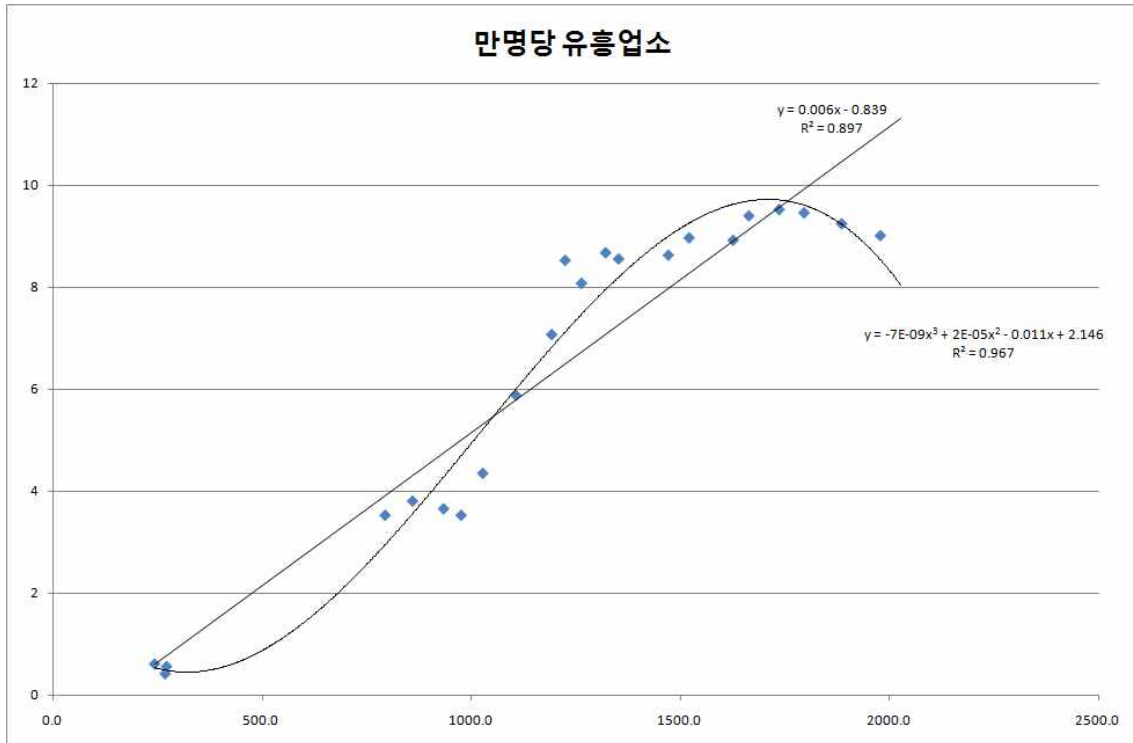
2010.06.07 14:58:37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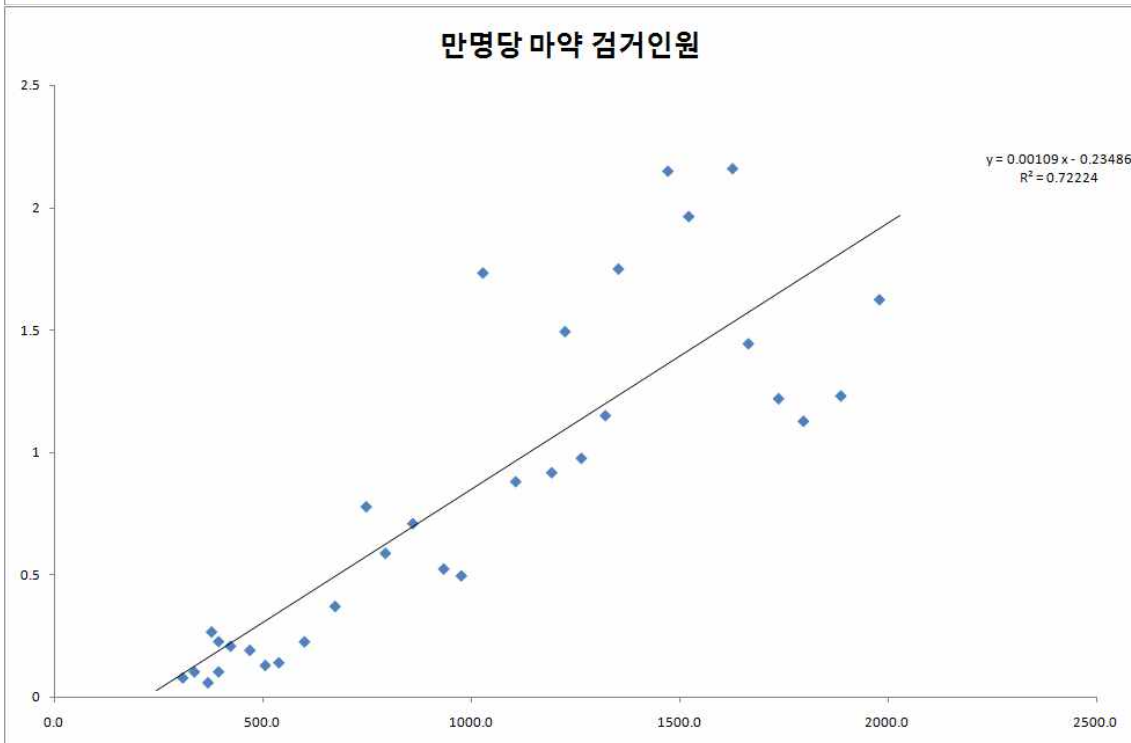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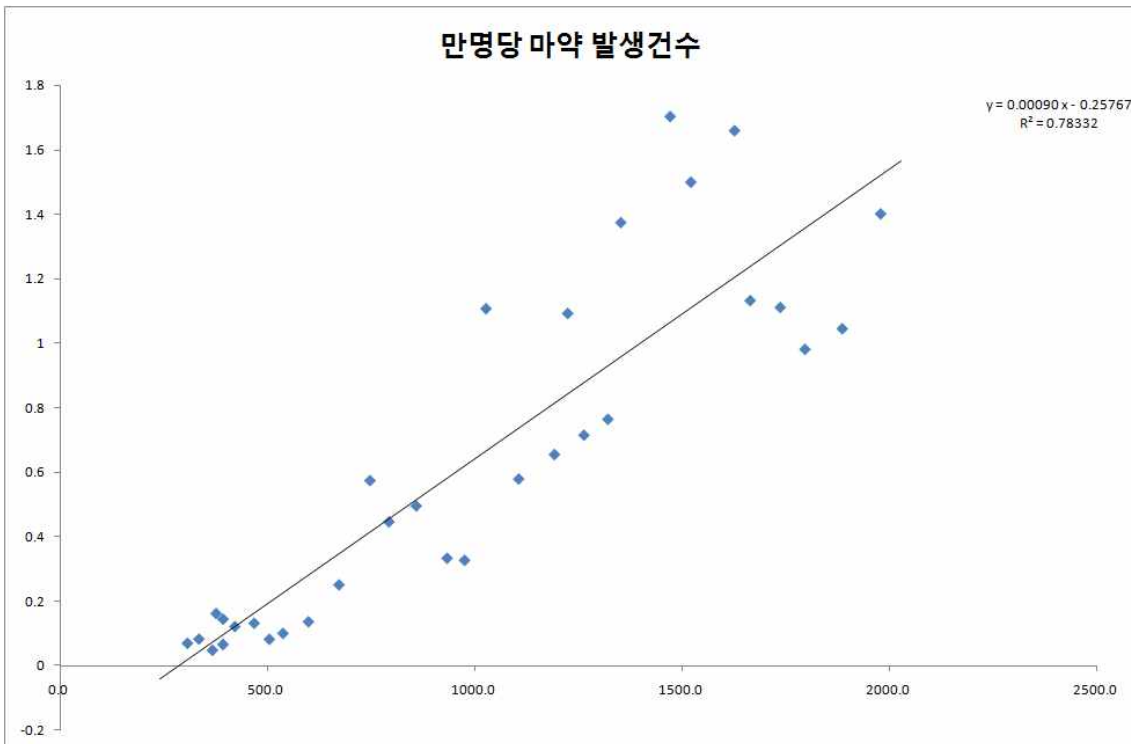
(3) 유흥산업, 마약산업

우리나라의 1970년대 이후의 실질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인구 만명당 유흥업소의 수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단순회귀분석을 통해서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아래의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이 1인당 1500만원 수준에 도달하는 2000년까지 우리나라의 인구 만명당 유흥업소수는 일부 경기변동에 따른 변화가 존재하였지만 매우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2000년초부터에 이르러서야 인구 만명당 유흥업소의 수가 정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회귀분석에서의 설명력은 R-square로 보았을 때 89-97%에 이르는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만명당 유흥업소의 수, 즉 인구 대비 유흥업소의 비율이 우리나라의 경제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의 술취함의 불경건한

문화의 만연한 비율이 2000년대 초반까지 1인당 소득수준이 1,500만원 수준에 이를 때까지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평균적 개인들은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유흥업소들을 출입한다는 의미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술취함 보다 더욱 강한 형태의 취함이라고 할 수 있는 마약사용은 어떠할까? 인구 만명당 마약 발생건수를 동일하게 1인당 실질 국민소득 수준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인구 만명당 마약 발생건수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4년 이후에 급속하게 마약 발생건수와 마약 검거인원수가 줄어들지만 아직까지는 이것이 하나의 추세인지 단속확대 등의 법규제강화의 영향 등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도박산업

우리나라의 도박산업은 2000년대 들어서 매우 급속한 매출확대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가 2000년 개장하면서 강원랜드를 통한 도박산업 매출이 크게 신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정도박이 2003년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로또복권도 2003년 처음 도입되면서 막대한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체육진흥 복권도 2001년 처음으로 발행되었기 때문이다. 2000년 신규 개장한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매출액은 2008년 1조1천억원에 달하며 경정은 6,800억원, 복권은 2조4천억원(2002년에는 9,796억원), 체육진흥복권은 1조6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네 가지 신규사업은 4조8천억원의 추가적인 도박산업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경에는 카지노, 경마, 경륜, 복권으로부터의 매출액이 6조7천억이었으나 2008년경에는 16조원으로 3배 가까운 성장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동기간동안 1인당 국민소득이 1,500만원에서 2,000만원 가량으로 성장하여 30% 정도의 성장을 한데 반해서 도박산업은 동기간 동안 매우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5장. 결론

(1) 시사점

본 연구는 불경건한 경제활동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람들의 불경건한 문화의 확산과 경제활동의 증가는 분명 경제적 부의 증가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는 개인의 경제적 부요와 풍요가 늘어나면서 이전에 할 수 없었던 많은 소비재의 선택이 가능하며 타락한 인간의 욕구를 감안할 때 점점 더 타락하고 불경건한 소비재에 대한 소비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경건의 강도는 1인당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성적 문화, 취함의 문화, 그리고 오락과 도박의 문화를 살펴보면 이전에 우리나라의 성 문화가 보수적이고 단순히 집창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형태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떠한가? 집창촌 뿐만 아니라 단란주점, 룸싸롱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원조교제의 형태까지 나타나며 성문화의 혼란함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정의 이혼율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개인의 부가 증가하면서 개인의 불경건한 활동들도 평균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취함의 문화에 있어서도 과거와 담배와 술의 소비량이 1970년대까지는 일정부분 늘다가 1인당 소비량이 이후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술과 담배의 취함은 이미 포화수준에 이르러 더 이상 매력적인 취함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마약류의 섭취가 늘어나고 있는 행태를 보여주

고 있다. 오락과 도박에 있어서도 과거의 오락은 오락실과 만화방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현재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게임의 중독성과 폭력성, 선정성의 수준이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다고만 여겨진다. 여기에 도박도 점차적으로 대중화되면서 경마, 경륜, 강원랜드 등 사행산업의 매출액 비중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사회의 불경건함의도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우리사회의 외환위기 전후의 변화에 대해서 매우 주목해야만 한다. 청소년들의 가치관은 1995년과 2005년에 실시된 가치관 조사에서 물질주의적으로 바뀐것을 알 수 있다. 요즘의 청소년들은 사회적 가치 보다는 물질적 가치로 대학에 가고 있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또 다른 중요한 변화인 전세계적인 인터넷의 확산이라는 새로운 정보통신의 혁명의 와중에 있다. 이는 경제적 부의 증대와 맞물려 불경건한 문화의 확산의 속도를 빛의 속도로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정의 해체가 확대되는 등 우리사회의 불안정성과 불경건함이 눈에 띄게 달라진 점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주목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2)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데이터의 한계로서 불경건의 문화와 경제활동을 본격적으로 측정할 만한 대리지표들을 찾는데 매우 큰 어려움이 있으며 특별히 장기적인 시계열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향후에는 서비스 산업의 5단계 세세 분류에 있어서 도박과 유흥업에 대한 부가가치 자료의 원자료를 확보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는 단순 상관관계 분석만을 시도하였는데 불경건과 경제적 부, 그리고 종교적 가치관의 영향 등에 대한 좀더 체계화된 이론을 바탕으로 인과관계 분석을 위한 회귀분석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거시 시계열 자료가 1970년대 이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인식하고 미시 개인자료를 바탕으로 이러한 변화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횡단면 설문 조사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